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2009년이 저물고 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의 연속이었고 대형 사건도 잇달았다. 그 중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등 지도자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다. 우리의 삶과 국가 장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해왔다. 김 추기경의 사랑·희생정신에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타파와 친서민 행보, 김 전 대통령의 화해와 국민통합에 이르기까지... 유난히도 울음이 많았던 그들은 생을 마치면서 까지 많은 정신적 재산을 남겼다. 장례식 때마다 우리는 추모대열에 합류해 용서와 화해, 통합을 얘기하며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고 다짐했다.

세종시·4대강 등 갈등 지속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언제 그랬느냐는 듯 갈등의 연속이다. 위정자를 비롯한 국민의 이중성이 원망스러울 정도다.

지난 2월 선종한 김 추기경은 “고맙습

니다. 사랑하십시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서 추구했던 꿈과 이상이 응축돼 있다. 평생을 기반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었으면서도 떠나면서까지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김수환

장기기증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큰 지도자를 잃은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느냐?”며 슬퍼했다.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역시 큰 충격이었다. 그가 그리는 세계는 ‘가진자와 못 가진 자가 더불어 신명나게 사는 세상’이었다. 생전의 그가 그토록 타파하고자 했던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금권주의는 영원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을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결국 그가 그리던 세계는 산자들의 숙제로 남겨졌다.

시민들은 그를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해 했고 심지어 여당 지도자조차 겸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모객들은 ‘서민들의 수호자’라는 글과 함께 정치보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은 별 유인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유언만 남겼다. 유언보다 더

강렬한 행동언어로 화해와 용서, 통합을 외쳤다.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그의 삶은 글곡으로 엮여져 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

고인들 뜻 새겨 국민통합을

친서민정책도 현실적이지 못해 ‘용산의 눈물’은 외면한 채 육감이 할머니, 시골학교, 생산현장을 찾는 등 다분히 전시적이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로 저소득층 무상지원이 폐지됐고 미소금증은 극빈층을 외면한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과 최고위원마저 정부의 영리병원정책 추진에 대해 서민과 부자들간 의료혜택 약극화를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無爲)를 강조했다. ‘위함이 없다’는 뜻이다. 위정자(대통령)가 국민을 위한다는 게 허물은 아니지만 이 일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것인지, 아집은 아닌지, 그 위하는 마음이 지나쳐 국민을 명들게 하자는 않는다는 곱금 따져야 한다. 3명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며 준 정신적 재산을 가르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제발 갈등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부국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래원



어느새 2009년 한 해가 저물고, 경인(庚寅)년 새 해가 찾아온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뜻없이 지난간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상념들로 가득하다. 이를 때면 늘 대화시절 가슴 아프게 읽었던 르 클레지오의 소설 ‘시간은 지나 가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된다.

내가 인생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 / 사랑, 자유, 꾸비에서 나는 냄새, 입술의 맛 / 어둑한 눈빛 / 두려움처럼 몸을 떨게 하는 육망 / 이런 모든 것

아무렇게나 흘러가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사랑이 찾아온 이 강렬한 순간처럼 우리 삶에 개인될 수 있다면, 삶의 시간이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고 아프도록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의 삶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싸움의 기록이며, 사랑과 희망을 기다리는 설레임 가득한 순간이다.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을 살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다

들을 배웠던 그 길고 타는 듯이 뜨거운 삶의 단 하루.

인생의 어떤 한 순간, 사람이 찾아온 시간의 강렬함을 그린 대목이다. 르 클레지오는 사랑이 찾아온 이 순간이 정지되어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인생의 한 순간이 마치 사진 찍히듯 강렬한 한 장의 그림으로 가슴 속에 각인되는 순간, 그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지 않고 항상 그곳에 머물며 그 시간을 주억하며 거듭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많은 말들을 나누고, 각오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어쩌면 우리는 내일을 위한 각오, 내일을 위한 생각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 해가 저물고 봄이 올 때면 그 많던 말들과 각오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대부분 우리 인생의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린 지워진 시간들로 돌아가고 있다. 첫바퀴 굴러가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시간은

〈문화평론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종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인체 유해 ‘석유계 용제’ 사용 세탁소 점검 필요

기고

최희우



매일 아침 목포 통일대로를 따라서 남아신도시 방향으로 출근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겪는 일이 교통체증과 혼잡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비용은 약 23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 집회시위로는 약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또, 2007년에 발표한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영상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각종 교육,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농작물 도난 우심지역, 주택가, 학교 주변 등 62개소에 124대의 교통 방법을 CCTV를 확충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 교통문화 의식 선진화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깨끗한 관광 전남’, ‘건강한 지역경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전남도민 준법·질서 크게 나아졌지만…

30개국 중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수준만 준수했다 하더라도 연간 1%의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성장했을 것이라는 분석 자료도 나와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준법질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법질서 바로 세우기’가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의 ‘법질서 바로 세우기’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지난 2008년 3월에 전남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종교단체, 노동단체 등 31개 주요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과 질서가 바로 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형성할 예정이다.

법질서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3월 ‘법질서 확립 전남지역 민·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법질서 지키기 홍보를 위한 ‘선진문화 시민이 됩시다’라는 동

등 법질서 준수와 더불어 훈훈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결과,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주체한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전남 지역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법은 전년대비 35.2%, 교통법규 위반사법은 9.5% 감소했고, 특히 불법 폭력시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법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의 위반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암체 운전자들의 고리 물기, 끼어들기 등 그릇된 운전습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서는 누구나 지킬 때 편리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식의 지혜를 나눔으로써 훈훈한 고장을 만들어 가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전남도 행정과장〉

채용기업들, 종합적 인재 평가 기준 만들어야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지금 심각한 취업난에 빠져있다.

제한 없는 재수강 허용, 취업용 성적표, 심지어 학점 포기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학들의 현실이다. 학문의 터전인 상아탑에서 실질적 학업 경쟁이 이루어지 않고 재테크를 하듯 학점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고 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대학을 떠나 흑백한 경쟁의 스타트리니에 살 때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싶

은 것은 모두의 바램이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점만이라도 높게”라는 절박감이 생기는 건 인지상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기업도 마냥 책임이 없을까.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학점 커트라인을 서류심사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점 외에 다양한 요인을 감안할 수 있는 종합적 인재 채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김기영·광주시 북구 운암동

시설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 근절책 시급하다

의약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의 실체가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돈을 받은 광주와 전남·북지역 대형 병원 의사 10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기독병원, 전남대·전북대·조선대·경원 등 노후남자역의 대표적인 병원 소속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리베이트를 쟁기 수법을 보면 과연 인술(仁術)을 베푸는 의사인지의 심이 들 정도다. 일부 의사들은 제약회사 사직원이 회식비를 먼저 결제한 뒤 실제로 회식을 하지 않고 식당 입주를 통해 ‘카드깡’으로 돈을 받는가 하면 외국계 제약회사 본사 견학을 명목으로 부동반 해외여행 자금까지 지원받았다

고 한다. 리베이트 관행의 폐해는 심각하다. 우선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약제비 부담 증가 등 피해를 환자에게 입힐 위험을 서둘러 발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근절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로비와 반발 때문에 발표를 미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등 분명한 범법행위인 리베이트 관행을 언제까지 두둔하려는가. 당국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을 서둘러 발표해야 할 것이다.

선거철 앞둔 위원장전임, 철저히 단속해야

위장전임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오랜 병폐다. 지도층과 종산층 사이에 아파트 분양이나 토지 매매,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거짓 주소를 두는 편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위장전임은 고위직 임명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국무총리에서부터 대법관, 장관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위장전임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위법 사례가 반복되면서 위장전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러나 주민등록 위장전임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거짓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공터나 마을회관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족한 조사 인력과 짧은 조사기간을 감안할 경우 이제 주민등록 위장전임은 광주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장전임 수법도 다양하다. 하나의 번지에 무려 20여 세대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공터나 마을회관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위장전임자 상당수가 선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임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無等鼓

마블링이 한 폭의 추상화 같은 한우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 구워 먹는 맛은 무엇과도 비할 바 아니다. 고기를 굽는 데는 불판보다 아무래도 ‘잉걸블’에 석쇠가 제격 아닐까. 한우고기는 시뻘건 속살과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로 먹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한우고기가 상종가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으로 인해 한때 판매 부진과 가격하락을 겪었던 상황과는 전연히 차다. 전남산 유명 브랜드들만 보더라도 1년 전에 비해 판매량이 적게는 70%, 많게는 500% 넘게 늘어났다.

정말아 산지 소값은 물론 송아지값도 크게 올라 축산농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때문이다. 아무리 원산지표시제나 쇠고기기력제를 동원해 ‘빛장’을 치고, 여기저기 직판장을 개설해 유통마진을 줄인다 한들 맛이 없다면 누가 사먹겠는가.

한우가 뭐길래

한우고기는 산지로부터 7~10일 만에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육즙이 풍부해 입안에서 살살 녹는 느낌을 준다.

반면 항공기나 배를 통해 1~3개월 시달리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의 경우 육즙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 육질이 퍽퍽하고 질기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음식에 대한 이력을 알면 맛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설득력 떨어지는 소비촉진보다 고품질 한우를 생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년에도 한우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이종태 사회2부장 jilee@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FAX 222-4918	사회 2 부